

내년도 건설자재 수요, 건설경기 회복세로 기대감 ‘솔솔’

- 철근 950만톤, 시멘트 4,400만톤, PHC파일 550만톤, H형강 310만톤 등 -

김 국 진 | 건설경제 기자

건 설자재산업의 경기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는 당연히 이를 구매하는 건설업계의 경기다. 건설업계, 정부, 기관별로 시각 차이는 있지만 건설 경기는 일단 작년 말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탔다는 게 중론이다. 대표적 지표인 국내 건설 수주액은 작년 91조 3,000억원으로, 2002년(83조 1,000억원)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지만 올해 100조원대를 회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104조 9,000억원, 건설산업전략연구소 102조원)하고 내년에는 2011년 수준인 110조원대까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현장이 꾸러진 후에 투입되는 자재 특성상 건설 수주나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 지표보다 건설기성, 건설투자, 건축착공면적과 같은 동행 지표와 일치하는 경향이 강한 점을 감안해 건설투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1년(-3.4%), 2012년(-3.9%)의 감소세가 2013년(6.7%)에는 급반등했고 올해도 증가폭은 둔화했지만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내년 증가폭은 3%대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현대경제연구원 3.0%, 한국은행 3.3%, 건설산업연구원 3.4%, KDI 3.8%, LG경제연구소 4.1%)이 지배적이다.

건설자재업계도 올해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론 이는 수요량, 출하량 등 물량 면의 전망일 뿐이며, 수익성은 별개 문제다. 올해 시멘트, 레미콘, PHC파일 등의 출하량 호조세와 유연탄, 철광석 등 원자재와 유가 안정세에 주목하고 있는 구매자(건설업계)가 내년 가격 협상을 버리고 있는 게 변수다.

그러나 호재도 있다.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실적공사비제도 수출책과 덤핑 방지에 초점을 맞춘 입찰제도 등의 개편이 맞물리면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산업의 수익성도 올해 바닥을

주요 기초 건설자재별 내년도 수요량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철근	915만t(0.8%)	900만t(-1.6%)	950만t(5.6%)
H형강	314만t(-2.6%)	300만t(-4.5%)	310만t(3.3%)
골재	2억 117만m³(0.04%)	2억 142만m³(0.12%)	2억 344만m³(1.0%)
시멘트	4,516만t(2.8%)	4,400만t(-2.6%)	4,400만t(0%)
PHC파일	534만t(-0.9%)	550만t(3.0%)	550만t(0%)

주 : ()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쳤다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다.

자재 품목별 단체 차원의 내년도 물량 전망치는 12월 말과 1월 초 사이에 나온다. 이에 앞서 단체,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도 주요 기초 건설 자재별 수요량과 경기를 가늠해본다.

내년 철근 수요, 950만톤에 이를 듯

철강업계는 내년 철근 수요량(7대 제강사 국내산 내수 기준)을 올해(900만톤 가량)보다 5.6% 가량 늘어난 950만톤 내외(국내산 내수 기준)로 보고 있다. 건설 수주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착공량이 늘고 올해 주택경기의 반짝 회복세에 힘입은 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신규 분양 물량의 착공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수입 철근 수요량은 올해(50만톤 가량)의 절반 가량인 20만~30만톤으로 내다봤다. 중국산 덩핑 철근의 폐해에 대한 국내 제강사들의 홍보 노력과 건설사들의 수입산 방어 기조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철근 수요량은 전년보다 늘어난 900만톤 가량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월 말 기준의 철근 생산량은 840만톤. 12월이 비수기란 점을 감안해도 60만톤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입 철근을 합치면 950만톤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철근 생산량은 2009년(967만톤)으로 5.3%

감소한 후 2010년(877만톤)에 감소폭이 9.4%로 확대된 후 2011년(880만톤)에 0.4%의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12년(907만톤)에 증가율이 3.0%로 확대됐지만 작년(915만톤)에는 증가율이 0.8%로 다시 축소됐다.

H형강, 내년 총수요량 310만톤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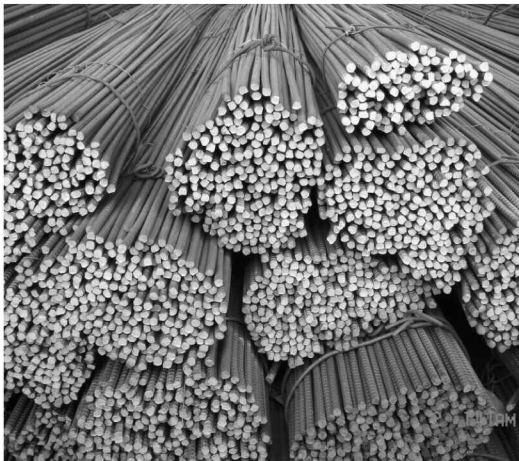
올해 총수요량(국내산의 내수+수출)은 300만톤으로 작년(314만톤)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11월 누적 수요량은 280만톤. 12월 동절기에 지반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만톤 수준에 머물고 이를 합산한 추정치다.

내년도 총수요량은 310만톤으로 올해보다 10만톤(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형강도 철근과 마찬가지로 내년 건설 수주액 증가에 더해 주택 등 민간 수요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에 따른 전망이다. H형강은 철근보다 공정이 앞서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수요량이 하반기를 능가하는 '상고하저'가 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내년 수출량은 신흥국 중심으로 늘어나겠지만 중국산 저가 덩핑 제품이 변수란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H형강은 2009년의 262만톤에 이어 2010년(286만톤)에 9.0% 늘었고, 2011년(318만톤)에는 증가폭을 11.2%로 늘렸지만 2012년(322만톤)에는 1.3% 증

특집

2015년 건설경기 전망



내년도 철근 수요는 올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95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에 머물렀다. 작년(314만톤)에는 2.6% 감소세로 돌아섰다.

골재 수요, 1.0% 늘어난 2억 344만^{m³}으로 추정

내년 골재 수요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2억 344만^{m³}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역총생산(GRDP) 내 건설투자 비중과 건설경기 동향, 그리고 건설투자 비중, 레미콘 출하 비중, 골재 공급 실적 비중,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한 지수에 따른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할 내년도 골재 공급 계획량은 이런 수요 전망치보다 4.1% 많은 2억 1,183만^{m³}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물량(EEZ 채취량 포함)이 1억 3,157만^{m³}로 62.1%를 차지하고 신고 물량이 8,026만^{m³}로 37.9%다. 허가 물량을 골재 채취 원별로 보면 하천 골재가 716만^{m³}(점유율 3.4%), 바다 골재가 1,041만^{m³}(4.9%), 산림 골재가 8,607만^{m³}(40.6%), 육상 골재가 793만^{m³}(3.7%), 그리고 EEZ 골재가 2,000만^{m³}(9.4%)로 예측됐다.

골재 공급 실적은 작년에 전년보다 0.04% 늘어난 2억 117만^{m³}에 이어 올해는 작년보다 0.12% 증가한 2억 142만^{m³}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상당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골재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최근 부동산경기가 달아 오르고 있는 경남 서부와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준설토 물량이 소진되면서 국지적 수급 애로가 상당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시멘트 수요, 올해보다 2.6% 늘어난 4,400만톤

내년 시멘트 내수는 올해 전망치인 4,400만톤 수준이거나 이를 조금 상회할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의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한 상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시멘트 출하량은 당초 전망한 4,400만톤보다 20만~30만톤 가량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었다.

시멘트 내수는 작년에 전년보다 2.8% 늘어난 4,516만톤이었고 올해는 2.6% 감소한 4,400만톤 수준에 미달하는 반면, 내년에는 4,400만톤을 복원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내년 시멘트 내수 증가폭이 올해 감소폭에 달린 셈이다.

문제는 시멘트 소요량이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바람이다. 정부의 SOC 예산이 늘어났지만 실제 시멘트 소요량 면에서는 공기업들의 물량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가 의존할 곳은 결국 건설경기를 좌우할 변수로 꼽히는 민간 주택 물량의 회복 여부다. 이에 더해 '상고하저'로 예상되는 내년 주택·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하반기 시멘트 출하량을 좌우할 결정 변수도 민간 주택 및 건설경기의 활성화 여부란 입장이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올해 하반기 들어 정부의 고강

도 주택 규제 완화책에 힘입어 민간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시멘트업계로선 내년 주택경기가 올해와 같은 회복세를 이어가느냐에 따라 4,400만톤 달성 여부가 달린 셈이다.

변수는 또 있다. 시멘트를 대체하는 슬래그, 플라이애쉬 등 대체재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대체재 공급량은 연간 1,000만톤 가량으로, 시멘트 생산량의 22%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시멘트 수요를 급속히 잠식하는 추세다. 시멘트업계는 대체재의 활용 비중 증감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 증감 폭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멘트를 재료로 하는 레미콘업계의 경기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좋아졌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반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레미콘 출하량 집계기 없어 추정만 할 뿐이다. 건설자재직협의 회가 대형 레미콘사로부터 입수한 9월 말 기준의 수도권 레미콘 출하량은 전년 동기(1,482만^{m³})보다 17.4%나 늘어난 1,740만^{m³}이다. 건자회는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올해 주요 레미콘사들의 출하 실적이 급증했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레미콘업계의 반응은 다르다. 건자회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목할 뿐만 아니라 레미콘사들 내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공공 건설 예산 확대에 관수는 호황을 잇고 있지만 민수는 극히 부진하며, 이로 인해 관수를 제한 받는 중견 이상 레미콘사들의 올해 매출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항변이다.

PHC파일, 내년에도 호조세 이어질 듯

PHC파일(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업계는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내년에도 이를 기대하고 있다. 9월 기준 누적 출하량은 전년 동기(401만 2,070톤)보다 8.5% 늘었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12년의 9월 누적량(409만 2,300톤)을 능가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새로운 사상 최대 기록 달성이 유력하고 내년에도 이런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연간 PHC파일 출하량이 500만톤을 넘는 해는 외환위기가 엄습한 2008년(536만 6,400톤)을 제외하면 2012년(542만여 톤)과 2013년(534만여 톤)이 유일하다. 종합하면 올해까지 3년 연속 500만톤을 넘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수립될 뿐만 아니라 500만톤 이상 기록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낙관적 전망이다.

PHC파일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싱크홀' 논란과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아산 오피스텔 부실 공사 논란 등에 힘입어 정부 차원의 안전 대책에 힘입은 파일공사 내실화 분위기가 자리 잡은 덕분이다. 같은 공사라도 과거보다 훨씬 더 파일을 깊이 박으면서 파일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었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건축·시설물 붕괴 우려를 막기 위한 건설사들의 파일 투입량 급증세가 한몫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다만, 변수는 건설사들의 단가 인하 압박이다. 지난 2012년 건설업계와 PHC파일업계 간 협의체가 구성된 후 2년 이상 가격 협의가 중단됐지만 건설자재직협의회 내부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PHC파일 가격 인하 요구가 잇따르는 탓이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PHC파일 출하량의 급증세가 이어지겠지만 수익성을 좌우할 PHC파일 가격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